



「물류의 길」을 읽고...

- 정준발 -

지난 3월4일 한·중·일 3국은 북경에 모여 파렛트 표준화 대계(大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나는 이 기간에 알게된 한국의 (사)한국물류협회 서병륜회장으로부터 그가 쓴 '물류의 길'이라는 책을 선물받았다. 나는 이 책을 노동절 기간에 열심히 읽고, 서회장의 물류대업에 대한 헌신적인 정신에 감동했다. 내가 느낀 감동들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든다.

■ 스승을 삼아 물류에 매진하다.

서병륜회장은 1949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최고 경영자과정과 한국과학기술원 최고정보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대우중공업에서 지게차 영업과장을 지냈으며 1984년 한국물류연구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물류의 길을 개척하는데 힘써왔다.

삼성전자, 롯데칠성음료 등 30여 업체의 물류컨설팅업무를 맡았으며, 현재 한국파렛트폴, 한국컨테이너폴, 한국폴운영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사)한국물류협회의 회장, (사)한국파렛트협회 부회장,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부회장, 농산물 신유통연구회 부회장,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서회장은 지금 한국물류업계의 일인자로 1984년 9월1일 대우중공업 지게차사업부를 그만둔 이래, 험난한 물류의 길을 걸어왔다.

1980년 그는 일본물류의 아버지 히라하라 선생(일본하역연구소 소장역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정신을 자신의 물류정신으로 삼아 고통을 감수하고, 역경을 이기며, 전력을 다해 한국물류발전을 태동시킨다. '공자가 나이 삼십에 뜻을 세운다'라고 했듯이, 그의 좌우명은 『물류의 길』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 히라하라 선생 뿐만아니라 사카이 선생(JPR대표이사), 이나쓰카 모도끼(일본물류관리협회 사무국장 역임)를 만나게 된다.

그 후,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을 답사하고 한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 창업의 길을 시작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기백으로 사업을 진행시켰고, 정부를 설득했으며 신문방송매체와 연계하였다.

1984년 마침내 한국물류연구원을 설립, 원장이 되었다. 1985년 10월 28일 제 1회 전국물류대회를 개최하고 1987년 7월 한국물류관리협회를 창립했다.(1995년 건설교통부 허가하에 사단법인 한국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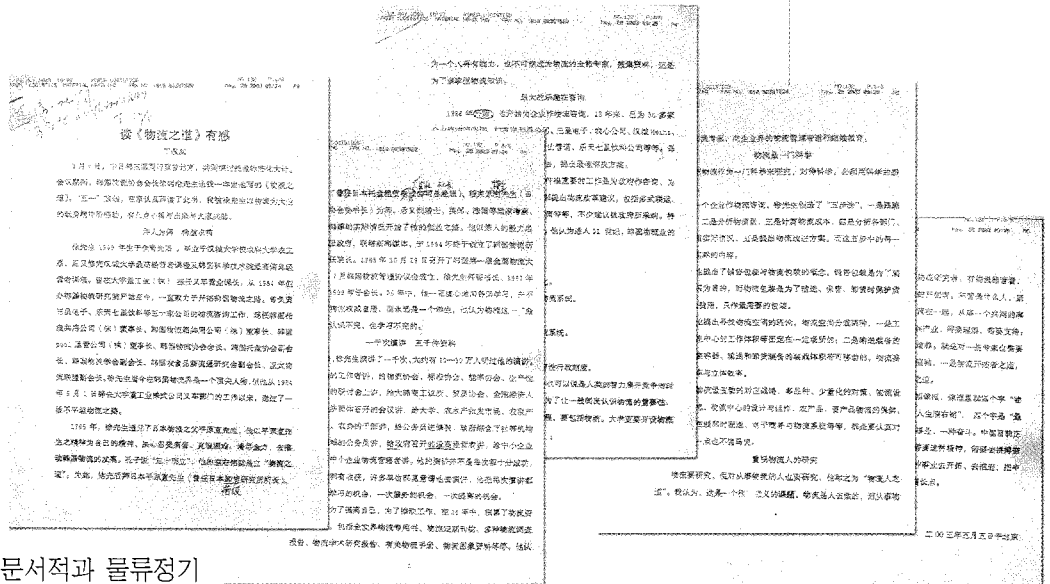
류협회로 명칭변경) 1997년 부회장을 역임, 1999년에는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겸허하게 25년동안 선진국에서 배운 자신의 물류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영원한 학생으로 자처하며, “물류는 영원히 아무리 파내어도 그 전부를 알 수 없는 ‘금광’이다”고 말하니, 역시 물류란 배워도 끝이 없다.

■ 물류강연 1천회 실시, 3천점의 자료수집

서회장은 지난 25년동안 1천회 강연으로 약 20~30만명이 그의 강연을 들었다. 물류협회, 표준협회, 능률협회, 생산성본부 등의 기관에서도 강의를 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도 강연을 했다. 또한 물류현장의 인력에서부터 대학,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의 간부뿐만 아니라 공무원연수원, 정부종합청사 등의 기구에서도 물류관련 공무원들에게 강의하고 정부가 주최한 최고경영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물류관리자에게도 강연했다.

그의 강연은 매년 성공적이었으며 청중은 적지않은 소득이 있었으며, 많은 부서에서 그에게 강연을 청했다. 그는 강의를 학습의 기회, 서비스의 기회로, 실력제고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서회장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위해 지난 25년동안 모든 물류자료가 3천권이 되었고 이는 전세계 물류전문서적과 물류정기간행물, 여러 종류의 물류조사보고서, 물류학술연구소 보고서, 물류관련 소책자를 포함한다. 그는 아무리 인간이 유능하다 하여도, 물류에 있어 전능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자료를 모았으며 이는 물류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자 함이었다.



■ 최대의 흥미는 물류컨설팅

1986년 그는 기업물류컨설팅을 시작해 지금까지 동양제과, 삼성전자, 농심, 서울하인즈, 해태제과, 고려합성, 부산파이프, 롯데칠성음료 등 30여기업의 물류컨설팅을 했다. 매 컨설팅을 할 때마다 모든 현장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장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컨설팅 이외에 또 중요한 업무는 정부자문 역할로 상공부, 농림부, 수산청, 건설교통부 등에 물류개혁을 건의해 다양한 연계운송, 물류표준화, 파렛트 시스템 등 적지 않은 의견이 정부로부터 받아

들어졌다. 특히 표준화정책과 파렛트 시스템 기술이 그것이다.

그는 21세기 한국물류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1.물류인프라의 구축 | 2.물류표준화와 물류공동화 |
| 3.공해가 적은 자원 절약형 물류시스템의 구축 | 4.물류의 자동화 |
| 5.정보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의 개발 | 6.국제화된 물류시스템의 구축 |
| 7.물류인력의 양성과 행정제도의 개선 | |

그는 “21세기는 지식산업의 시대이며 또한 인류의 두뇌로 경쟁하는 시대이다”라고 한다. 따라서 물류분야에서도 우수한 물류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제 관련 교과에서 물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학은 물류과정을 설치하여, 물류전문가를 배출하며, 산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류관리자에게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물류는 과학이다.

서회장은 물류를 하나의 과학으로 여기고, 과학으로 대하고, 과학적 태도로 임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의 물류컨설팅을 할 때 ‘5단계 방법’을 강조하였다.



첫째, 물자의 흐름을 추적 및 분석하고, 둘째, 물동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셋째, 물류비를 산출하며, 넷째, 각 부문별 기능별 실태를 분석하고, 다섯째, 물류개선방안을 작성하라고 하였다. 5단계 방법론의 모든 단계들이 매우 실제적 내용이다.

예를 들어, 서회장은 판매포장과 물류포장의 개념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판매포장은 소비자들에게 구매욕구를 일으켜 많은 판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물류포장은 수송, 보관, 하역시에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포장만을 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물류공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물류공간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공장건물이나 물류센터의 작업용적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운송장비의 적재함이나 포장용기, 운반/하역 장비의 적재용적 등과 같이 이동하는 것이다. 물류는 적재효율과 입체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동량 변동의 대응전략, 다품종 소량화에 대한 대책, 물류설비의 표준 선정, 물류센터의 중요성, 농축산물의 신선도유지, 생산기업의 즉시 배송, 전자상거래 및 물류시스템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이 진지하게 다루어져 있었다.

■ 물류인의 연구 중시

물류는 연구되어야 하지만 물류에 종사하는 물류인도 연구되어야 한다. 서회장은 “물류인의 길”이라고 칭하였는데 내가 느끼기에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물류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한 물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물류관리자가 있고, 물류연구자 및 물류경영자, 물류실무자가 있다. 이 중 몇몇 사람들은 창업자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물류에 관한 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인연으로 모두가 모여 하나의 공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째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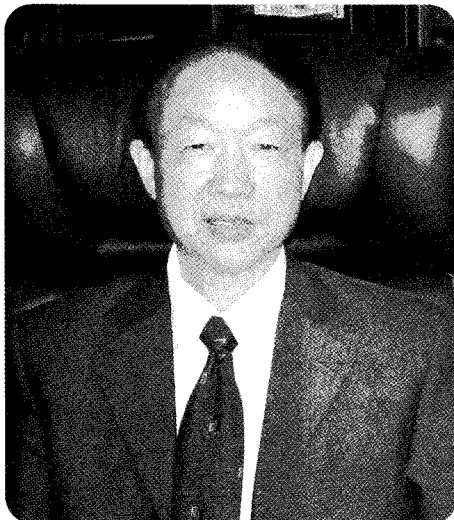
두번째로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 물류는 하나의 신흥사업으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그들을 양성해야 한다. 특별히 젊은층을 양성해야 하며 전문가들 또한 젊은 인력 배양에 앞장서야 한다.

서회장은 물류인의 길을 3가지 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물류개척자의 길, 둘째로 물류건설턴트의 길, 셋째로 물류사업가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

서회장은 그의 사무실에는 ‘物流之道’라는 4글자로 된 한 폭의 액자가 걸려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지난 25년간 물류의 길을 걸어온 나의 좌우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네 글자는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 1호라고도 말하였다. 이는 하나의 정신이며 하나의 사업이며 하나의 투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은 현대 물류산업의 발전시기에 도래해 있으며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과 절박한 투지가 요구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류를 하나의 사업으로 여기고 개척하며, 더 나아가 중국의 물류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발판으로 삼아 나가야 하겠다. **물류**



◆ 필자 : 정준발(丁俊拔)

1964년 중국인민대학 졸업 후 프랑스에서 유학.

1967년 귀국 후 기계공업부, 물자부, 국내무역부 등에서 사장, 총경제사, 대학 부학장, 국내 무역국 부국장 등을 역임.

현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 상무 부회장, 중국 시장학회 부회장, 중국 물류학회 상무 부회장, 국제구매 및 물자관리연맹 이사로 재직중

주요저서 : <유통경제학>, <국내무역경제관리>, <신세기 중국유통 발전전략>

<중국의 WTO가입과 유통업이 맞는 도전, 기회 및 발전>

<서부 대발전-중국 21세기 대전략>, <세계로 향하여>, <중국물류> 등등

수상경력 : 2번의 과학기술 진보 1등상 수상과 1차례 중국 도서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2000년도에는 <중국시장>이라는 잡지가 선정한 중국시장에 있어 영향력 있는 25인의 경제학자 중 한명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